



베테랑 문화기획자 전고필씨가 8일 담양 국수거리 뒷편 골목에 문을 연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는 향토사 전문책방이다.

“향토사 전문책방 통해 문화발신지 꿈 꾀”

고향 담양에 '이목구심서' 오픈한 문화기획자 전고필 씨 장서 등 4000여권... 인문학가속 문화지소장도 맡아

이 책방의 쓰임새가 바로 증명되었다. 함께 방문한 이가 줄곧 찾던 고(故) 박선홍 선생의 '광주 1백년사' 1권을 이곳에서 발견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여느 서점과는 좀 다르다. 영광군지, 나주다시면지, 장성군의 문화유적 등이다. 얼핏 '광주일보 40년사'도 눈에 띄었다.

담양 국수거리 뒷쪽에 지난 주말 문을 연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는 향토사 전문 책방이다. 주인장은 문화기획자 전고필(53)씨다. 3년간 광주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을 맡는 등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가 고향 담양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했다. 오랜 꿈이었던 서점 문을 연 데 이어 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한 인문학가속 문화지소장을 맡아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됐다.

"새로 나온 책들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연구서나 보고서를 비롯해 문화원 등 각종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들은 한번 출간되고 나면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책들이 축적되고 순환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문화기획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책과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 개인 책장에 있는 이런 책들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책방 이름은 '간서지'로 불린 이덕무의 책 제목에서 따왔다.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말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적은 책"이라는 뜻이다. 책방은 "눈빛은 사람이 애써 찾아오면 좋을 것"같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죽세공품 공장으로 사용하던 창고를 빌려 마련한 24평의 서점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책보고 쉬는 공간으로 대나무 평상도 가져다 놓았

다. 책은 4000여권 정도로 전 씨의 장서와 함께 기증받은 책들을 함께 두었다. 서점에 와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판매도 한다. 전국의 향토사와 관련된 일반 서적도 가져다 놓고 기증도 더 받을 예정이다.

"지역사 등을 공부할 때 대중적인 책만 읽으면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어요. 그 근원을 찾아다니니 지역 문화원에서 발행한 책들이 좋은 자료란 걸 알았죠.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꼭 문화원에 들러 필요한 책을 챙겼어요."

그는 책방이 소박한 문화발신지 역할을 하길 꿈꾼다. 담양을 지켜온 예술가, 활동가들과 자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주제가 있는 북콘서트와 북전시회도 준비중이다.

"소쇄원을 찾아가는 방식"전을 준비중인데 소쇄원을 알아갈 수 있는 책을 모아 선보이는 거예요. 소쇄원이라는 공간과 역사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곳에 있는 나무와 꽃, 새, 신화까지 아는 게 확장됩니다. 책 한권이, 특정 장소의 기록 하나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고를 확장시키며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전공이 관광이니 '누정을 찾아서', '김덕령의 전설을 찾아서' 등 테마가 있는 여행을 꾸려보려해요."

문화기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가 '기획'이라는 걸 해본 건 1998년이였다. 광주신세계갤러리의 '남도 정신의 원류를 찾아서'가 출발이었다. 공식 데뷔는 장흥문화마당과 함께한 2002년 장흥수물마루 문화제였다. 이후 운주축제, 고인돌축제, 대인예술시장 사업 등을 진행했다. 8년간 일했던 북구 문화의 집, 2년간 몸담았던 광주문화재단도 도움이 됐다.

"문화의 집은 일상이 기획이라는 사실,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죠. 제 문화기획의 자양분같은 곳이었죠. 재단에서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고, 적절한 예산을 가지있게 쓰는 일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맡게 된 문화지소장은 그의 또 다른 출발이다. 문화지소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생태 도시와 함께 문화, 인문학의 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지향도를 그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몇년 사이 예술계·학계 인사들이 담양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박이들과 어우러지면서 문화적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담양의 걸모습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살아온 삶의 모습, 지켜온 삶의 태도들이 중요하다는 자기 각성이 이뤄진 듯합니다. 또 마을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힘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죽녹원과 메타세콰이어로 대표되는 외양이나 관광객이 몇백만명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보다 담양을 이루는 다양한 '정신'을 찾아내고 '담양에는 뭔가 있어, 그 걸링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담양이 '인문학적 영혼이 깃든 도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준 한창기가 발행한 '뿌리깊은 나무'였고 거기서 파생된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뿌리깊은 나무'의 '한국의 발견' 시리즈를 접하고 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국토와 사람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구나 경이로웠습니다. 미시사가 아닌, 통사로 보는 인문지리서를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국의 발견 2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서점이 그 출발이기도 하구요. (웃음). 또 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장서가를 위한 도서보관업도 구상중입니다." 오픈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61-381-2019.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래된 좁은 골목길... 따뜻한 삶의 풍경

'기억하다:산수' 노여운 초대전, 21일까지 산수미술관

지난해 문을 연 산수미술관(광주 동구 밤실로 64의 1)은 오래된 양옥집을 개조한 공간이다. 지금 그곳엔 산수동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걸려있다. '쓸쓸하고도 따뜻한' 오래된 골목길 모습이 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길 위의 오래된 슈퍼와 이발소, 세탁소 등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우러진 풍경은 따스하다.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이 노여운 작가를 초대해 오는 21일까지 전시회를 열고 있다. '기억하다:산수-사소한 풍경의 익숙한 침묵'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작가는 산수동과 주변 두암동, 지산동의 사소한 풍경을 담아낸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골목길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건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0년 즈음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학동 사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 기록하기 시작한 게 출발이다. 이후 그는 한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곤 드로잉북과 사진기를 들고 골목을 걷는다.

노여운의 작품은 처음 보면 유화 느낌이 나지 않는다. 물감을 얇게 펴 바르고 파스텔톤의 색감과 함께 화폭에 광택을 주는 바니쉬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이번 신작들은 기존 작품에 비해 색감이 무거워진 느낌이지만 편안함을 준다.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빛과 그림자다. 빛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장소지만 다르게 보이고, 골목길이 좁다 보니 이곳 저곳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부분이 많다. 그의 골목길 풍경 속에 인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담배락, 철제대문, 고무 다라이, 화분, 자전거, 평상, 낡은 방수포 등을 통해 그곳에 살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난다. 또 골목길과 더불어 고층 아파트 등 도심의 변화가는 풍경들도 함께 집어 넣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준다.

좁은 지하 공간에는 겨울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걸렸다. 기존 골목길과는 다른 느낌을 풍기는, 윤림동을 그린 '남겨지다 3'이 인상적이다.

"도심의 골목길은 시간과 삶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그 흔적을 담는 건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이 없어지는 것들,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골목길이 주는 따뜻함을 앞으로도 계속 담아내고 싶습니다."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흘러가다'

'영산강의 사계' 김길동 초대전, 30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주위타워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한국화가 일선(一田) 김길동 작가를 초대해 오는 30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산강의 사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아름다운 영산강변의 봄·여름·가을·겨울 풍경을 변화무쌍한 구도와 담백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깊고 내밀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그의 작품은 자연스러운 번짐과 담백함이 특징인 수묵과 화사한 채색이 어우러져 섬세한 서정성을 담아내며 정통 한국화의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사한 배꽃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이화전', 시원한 폭포의 느낌이 살아있는 '관폭도'와 함께 금강산의 비경을 담은 '금강산 기행도' 등도 전시중이다.

진도 출신으로 목포에서 활동하며 지금까지 8

차례 개인전을 연 김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했으며 목포미술협회 목포미술인상을 수상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화전'

아시아문화전당 '손안의 ACC 숲'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여름철 특별 체험 프로그램 '손안의 ACC 숲'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ACC메이커스페이스의 커뮤니티라운지(민주평화교류원 지하2층)에서 진행하며, ACC

소개와 함께 액자만들기 체험 순서로 운영된다. 액자 만들기는 ACC의 건축개념인 빛의 숲을 모티브로 천연재료 스크andia모스(물 없이 키우는 복유류 이끼식물) 등이 담긴 체험키트(KIT)로 진행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1일 3회(각 50분간), 매회 15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1만원. 참여자에 대해 릴레이 티켓 20% 할인, 문화정보원 컬처숍 일부품목 10% 할인, 주차요금 3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062-601-4052.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